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인격적 임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3부 '하나님 말씀의 본질' 가운데 '인격적 임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의 9장(다스리는 권능)과 10장(의미 있는 권위)을 잇는 장이므로 11장으로 보임. 본문의 쪽 표시로는 137~144쪽 무렵.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세 가지로 풀어 왔다. 다스리는 능력, 의미 있는 권위, 인격적 임재다. 앞의 두 장에서 말씀을 능력과 권위로 설명했고, 이 장은 마지막 셋째인 '임재'를 다룬다. 출발점은 신학적 추론이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꼭 있는 성품이고, '말씀'은 삼위일체 제2위격의 이름이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프레임은 이것이 추론만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 하는 말이라며 아홉 가지 증거를 쌓는다. 하나님의 가까움은 곧 말씀의 가까움이고,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우상과 다르다. 삼위는 말씀 안에서의 역할로 구별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며 하나님만 하실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은 찬양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히고 들리는 곳마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0. 들어가며 — 세 번째 주권적 속성, 임재

프레임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피조물 안에, 또 피조물과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과 만나셨다. 장막과 성전에서는 말 그대로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성자는 사람이 되어 직접 대신하셨기에

사신다. 그렇다면 말씀도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인가? 프레임은 그렇다고 답하고, 일반 신학의 두 근거를 먼저 댄다. 첫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있는 성품이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도 있다. 둘째, '말씀'은 삼위일체 제2위격의 이름이고 한 위격이 일하시는 곳에는 다른 두 위격도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편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다만 프레임은 이것이 큰 원리에서 끌어낸 추론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성경이 이 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아홉 절이 그 증거다.

1. 주권적 속성: 다스림·권위·임재
2. 앞 두 장은 능력·권위, 이 장은 임재
3. 말하기는 하나님께 필수적인 성품
4. 말씀(성자) 있는 곳에 삼위가 함께하심
5. 추론을 넘어 성경이 직접 말하는 진리

> **(참고·저자 장절 없음) 출애굽기 29:45**
>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장막 임재의 배경
>
> **출애굽기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 **(참고·저자 장절 없음) 마태복음 1:23**
> '임마누엘' 이름의 출처
>
>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참고·저자 장절 없음) 고린도전서 3:16**
> 성령이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심
>
>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명기 4:7-8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특별히 가까이 계신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 가까움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공의로운 율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말과 묶여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한 쌍이라는 뜻이다. 신명기 30:11-14는 더 분명하다. 명령은 하늘이나 바다 건너에 있지 않다. 네 입과 네 마음에 있을 만큼 가깝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말씀의 가까움으로 표현된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0:6-8에서 이 구절을 조금 바꿔 인용한다. 신명기의 '가까운 명령'이 복음 안에서 '가까운 그리스도'가 된다.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안에 그분이 이미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가까움 = 말씀의 가까움
2. 신명기 4장: 가까움과 공의로운 법이 한 쌍
3. 신명기 30장: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음
4. 로마서 10장: 말씀의 가까움 = 그리스도의 가까움
5. 하늘에 오를 필요 없이 말씀으로 만남

> **신명기 4:7-8**
> 하나님의 특별한 가까움을 공의로운 율법과 연결
>
>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 **신명기 30:11-14**
>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을 만큼 가깝다. 하나님의 가까움과 같은 표현
>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0:6-8

신명기 본문을 복음에 적용. 말씀의 가까움이 그리스도의 가까움이 됨

[6]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 2.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늘 함께 등장시킨다.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려 하실 때 영이 수면 위에 계셨다. 시편 33:6은 창조의 근원으로 '말씀'과 '입 기운'을 나란히 놓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 기운을 그분의 영으로 말한다.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프뉴마'가 영이면서 바람과 숨도 뜻하니 이 연결은 자연스럽다. 예수님은 자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성령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해졌다고 하고, 반대로 거짓 말에는 거짓 영이 따라온다고 경고한다.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고, 사람 저자들은 성령에 이끌려 말했다.

1.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짝으로 등장
2. 창조: 말씀과 입 기운(영)이 함께
3.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함
4. 거짓 말에는 거짓 영이 따름

창세기 1:2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영이 수면 위에 계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33:6

창조의 근원으로 '말씀'과 '입 기운'을 함께 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사야 34:16; 이사야 59:21

하나님의 입(기운)이 곧 그분의 영임을 보여 줌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59: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63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6:13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2:1-4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함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과 성령으로 함께 이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2

거짓 '영'과 거짓 '말'이 함께 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16

성경은 하나님의 숨(theopneustos)에서 나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3.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행하신다

프레임은 9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영원한 계획, 창조, 섭리, 심판, 은혜로 묶고, 그 모두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였다. 10장에서는 능력과 권위가 떨어질 수 없음을 보였다. 이제 하나는 더 붙는다. 능력과 권위는 인격적 임재와도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므로 그분의 임재를 '몇 미터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잴 수 없다. 그러면 몸 없는 인격이 어디 계신지는 어떻게 아는가? 그분이 다스리는 힘을 쓰고 명령을 이루시는 곳 어디든 그분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그렇게 하시므로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신다면, 말씀은 그분의 인격적 임재와 결코 따로 있을 수 없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불타는 떨기나무, 시내산, 지성소 같은 더 집중된 임재에서도 말씀은 함께 있지만, 자기 요점은 가장 넓은 임재인 편재 안에도 말씀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1.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짐(9장)
2. 능력·권위·임재는 서로 떨어지지 않음
3. 몸 없는 분의 임재는 다스림으로 알 수 있음
4.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니 편재하심
5. 일반 편재 안에도 말씀은 함께 있음

> **(이 절 본문에는 저자의 장절 인용 없음)**
> 9·10장의 논증을 이어받은 신학적 논증

> **(참고·저자 장절 없음) 출애굽기 3:4**
> 각주의 '불타는 떨기나무'. 임재와 부르시는 음성이 함께

출애굽기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고·저자 장절 없음) 출애굽기 19:19

각주의 '시내산'.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심

출애굽기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참고·저자 장절 없음) 출애굽기 25:22

각주의 '지성소'. 속죄소 위에서 만나 말씀하시겠다고 하심

출애굽기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 4.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된다

성경은 우상을 말 못하는 신으로 그린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에서 소리를 내지 못한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도 '어느 신이 응답하는가'의 싸움이었다. 바알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다. 프레임은 여기서 결론을 끌어낸다. 말씀하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성품이다. 이 성품이 참 하나님을 이른바 '신'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과 가른다.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께 덧붙은 부속품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 주는 표지다.

1. 우상은 벙어리, 하나님은 말씀하심
2. 갈멜산 대결의 쟁점은 '응답'
3.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 옴
4. 말씀하심은 참 하나님을 가르는 표지

그리스도전서 12: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시편 115:5-7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시편 135:16

같은 우상 묘사의 반복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하박국 2:18-20

말 못하는 우상과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대조 (원문의 '1:18-20'은 2장의 오기로 보임)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18:24-35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대결의 기준. 불의 응답은 18:38

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5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

📜 5. 삼위일체의 위격은 신적 발화에서 삼위의 역할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프레임은 삼위를 구별하는 성경의 방법이 이것 하나뿐은 아니지만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성부는 말씀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하늘의 별과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음성이 온 세상을 흔든다. 성자는 '말해진 말씀' 자체이시다. 성령은 말씀을 실어 날라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힘 있는 숨이시다. 말하는 이, 말해진 말, 그 말을 나르는 숨이라는 그림이다. 프레임은 뒤에서 이것을 '삼위일체의 언어적 모델'로 다시 다루겠다고 예고한다. 결론은 말씀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됨과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1. 성부: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름 지으심
2. 성자: 말해진 말씀 자체
3. 성령: 말씀을 실어 나르는 숨
4. '삼위일체의 언어적 모델' 예고
5. 말씀은 삼위일체와 분리되지 않음

시편 29편(특히 29:3-9)

성부: 여호와의 소리가 만물을 다스림

시편 29장 [1]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룐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

시편 147:4; 이사야 40:26

성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심

시편 147: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사야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3:1; 이사야 62:2; 이사야 65:15

성부: 백성을 부르시고 새 이름을 주심

이사야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62: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 65: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에베소서 3:14-15

성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14]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한복음 1:1

성자: 태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0:6-8; 신명기 30:11-14

성자: 가까이 있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

로마서 10:6-8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11-14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3

성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심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일서 1:1-3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계시록 3:14; 요한계시록 19:13

성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심

요한계시록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창세기 1:2; 시편 33:6

성령: 창조의 말씀과 함께하는 숨

창세기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5

성령: 복음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심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21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6.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속성을 갖고 있다

성경은 말씀이 의롭고, 신실하고, 놀랍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리이고, 영원하고, 전능하고, 완전하다고 말한다. 대부분 시편 119편에 모여 있다. 프레임은 이것이 사람에게도 쓰는 평범한 칭찬이 아니라고 본다. 사람의 정직이나 신실함과 같은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원함과 전능함 같은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 본성의 고유한 특징을 말씀에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종류가 다르다.

1.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고 진리다
2. 말씀은 영원하고 전능하다
3. 사람의 덕과 같은 수준의 칭찬이 아님
4. 하나님 본성의 특징이 말씀에 있음
5.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

시편 119:7

말씀의 의로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9:86

말씀의 신실함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19:129

말씀의 경이로움(기이함)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편 119:137

말씀의 정직함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 119:140

말씀의 순수함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142; 요한복음 17:17

말씀은 진리

시편 119:142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요한복음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89; 시편 119:160

말씀의 영원함

시편 119: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창세기 18:14; 이사야 55:11; 누가복음 1:37

말씀의 전능함.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

창세기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사야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9:7

말씀(율법)의 완전함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 7.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수행한다

절 제목의 '단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히브리서 4:12은 말씀이 살아 있어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뜻까지 가르고 판단한다고 말한다.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어지는 4:13은 '그 앞에', '그의 눈 앞에'라고 말하며 하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프레임은 주제가 바뀐다는 문법적 표시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두 절은 한 흐름으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말한다. 둘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없다. 말씀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까지 한다.

1.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음
2. 마음 판단은 하나님만의 일
3. 히브리서 4:12→13, 주제 전환 표시 없음
4. 말씀의 능력 = 하나님의 능력
5. 신적 성품에 더해 신적 행동까지

히브리서 4:12

말씀이 살아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13

끊김 없이 '그의 눈 앞'으로 이어짐. 말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

>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8.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같은 태도로 말씀 앞에 선다. 떨며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계명을 향해 손을 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성경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언제나 우상숭배로 본다. 그런데도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나무라지 않는다.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서 숭배'인가? 프레임은 구별한다. 말씀을 담는 매체인 종이, 잉크, 양피지, 테이프, CD-ROM은 피조물이므로 숭배하면 우상숭배다. 그러나 그 매체를 통해 받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예배하며 받아야 한다. 복음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람의 말을 신적 권위로 받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성경 자신이 그렇게 받으라고 가르친다. 프레임은 이 비난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복음주의자가 이 때문에 성경관을 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 시편 기자는 말씀 앞에서 떨고 기뻐함
2.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시편 56편)
3. 말씀 찬양은 우상숭배가 아님
4. 매체(종이·잉크)는 피조물, 숭배 금지
5. 성서 숭배 비난에 성경관 묽히지 말 것

시편 119:120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사야 66:5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19:161

마음이 주의 말씀을 경외함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편 119:162

말씀을 기뻐함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48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듦(예배의 몸짓)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9:2; 시편 34:3; 시편 68:4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

시편 9: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34: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68: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함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56:4; 시편 56:10

'그의 말씀을 찬송함'. 이 절의 결정적 근거

시편 56: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 9.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1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의 구절들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부른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말씀으로만 읽는다. 그러나 프레임은 '태초에'라는 첫마디를 유대인 독자라면 곧바로 창세기 1:1로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요한복음 1:3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말씀과 겹친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창조하는 말씀의 신성도 가리킨다. 이 구절은 하나님, 그리스도, 창조의 말씀이 하나임을 함께 가르친다. 결론은 이렇다.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난다. 둘은 떼어 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인격적 임재다.

3. 그리스도·하나님·창조의 말씀이 하나
4.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
5.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

요한복음 1:1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장 전체의 결론 구절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1

'태초에'의 배경. 창조의 말씀과 연결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3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짐. 창조의 말씀임을 확인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14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심까지 이어지는 흐름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히브리서 1:1-3; 요한일서 1:1-3; 요한계시록 3:14; 요한계시록 19:13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다른 구절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일서 1:1-3 [1]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계시록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고 읽혀지며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신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주권적 속성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보여 주는 세 특징. 다스리는 능력(통제), 의미 있는 권위, 인격적 임재로, 프레임 신학의 기본 틀이다.

하나님이 공기처럼 퍼져 계신다는 뜻이 아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고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편재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갇히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성품.

발화(speech)
'말하기'. 프레임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꼭 있는 성품이라고 본다.

테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
디모데후서 3:16의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나온'이라는 뜻. 흔히 '영감'으로 번역하며,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한다.

루아흐 / 프뉴마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영'을 뜻하는 말. 바람과 숨도 함께 뜻하므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숨'으로 그리기도 한다.

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영원함, 전능함, 완전함 같은 것이다.

성서 숭배(bibliolatry)
성경책이라는 물건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비판의 말.

매체
말씀을 담아 전하는 물질. 종이, 잉크, 양피지, 녹음테이프, 파일 등이며 피조물이다.

삼위일체의 언어적 모델
성부를 말하는 분, 성자를 말해진 말씀, 성령을 말씀을 나르는 숨으로 보는 비유 틀. 이 장에서는 예고만 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능력이요 권위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 임재다.
- 이 결론은 신학적 추론에서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아홉 갈래로 직접 증언한다.
-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 다만 말씀을 담은 매체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높이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그 안의 하나님 말씀이다.
- 말씀이 선포되고 읽히고 들리는 곳마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편 ·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